

‘선방’ 조현우, 케이로스 마저 반하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의 경기, 대한민국 골키퍼 조현우가 헤이슨 무리요의 슈트를 막아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월드컵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축구대표팀의 골키퍼 조현우(대구)가 한국과 약연인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마저 반하게 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토트넘), 이재성(울산현대)의 연속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을 빼놓을 수 없다. 결정적인 위기에서 수차례 실점을 막았다. 벤투 체제에서 주전으로 낙점 받은 김승규(빗셀 고베)가 징역으로 빠지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조현우는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이후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특히 올해 1월 아시안컵에서 김승규에 주전 자리를 완전히 넘겨줬다.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에 A매치 출전 “김승규 등과 계속 좋은 경쟁 이어갈 것”

4개월 만에 출전 기회를 잡은 조현우는 “경기에 나가지 못할 때, 뛰고 싶었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왔다. 못 뛰더라도 준비했다”며 “그렇기에 감독님이 기회를 준 것 같다. 이번에 (김)승규 형의 부상 이 안타깝지만 다음 소집 때에도 계속 좋은 경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란 대표팀 감독 시절 8년 동안 한국을 상대로 4승1무를 기록한 케이로스 감독은 새롭게 콜롬비아 감독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날 한국에 첫 패를 당했다. 조현우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케이로스 감독은 “전반은 어려운 경기였지만 후반에는 공을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면서도 “한국 골키퍼가 특히 많은 활약을 보였다. 골 기회가 2~3번 정도 있었는데 그걸 다 막았다. 무척 높게 평가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조현우는 “이겨서 기쁘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속팀으로 돌아갈 것 같다”며 “오늘 공이 많이 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항상 자신감을 가

지고 훈련했는데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1실점에 대해선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실점을 했고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50점 정도 주고 싶다”며 “이제는 팀에 돌아가 대구를 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벤투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해선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며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는데 처음보다 편한 마음이 있지만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계속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고 했다. 한편, 콜롬비아의 세계적인 공격수 팔카오(AS모나코)는 후반 막판 구급상자를 집어던지는 불쌍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경기를 재개하려는 의사를 매우 거칠게 표현한 것이다. 골키퍼 조현우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현우는 “별 생각은 없었다. 그냥 밀리고 싶었다”고 했다.



손흥민 “어린 선수들, 함께 훈련하고 경기만 봐도 성장”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어린 선수들의 성장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울산현대)의 연속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22일 울산에서 불리비어를 1-0으로 제압한 한국은 3월 A매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콜롬비아와의 역대 전적에서는 4승 2무1패로 우위를 점했다. 오랜 전적인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과의 악연도 청산했다. 이란 사람잡으로 있던 8년 동안 한국을 상대로 4승1무를 기록했지만 콜롬비아를 이기고 첫 패를 당했다. 손흥민 개인에게도 의미있는 경기였다. 그가 득점포를 터뜨린 것은 지난해 6월 독일과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이후 9개월 만이다. 벤투 감독 취임 이후엔 처음이다. 이날 선제골로 승리를 견인했지만 손흥민은 “탑한테 미안하다”고 발문을 열었다. “8경기 동안 골을 못 넣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골을 먼저 넣었을 때도 내가 먼저 거론된다. 사실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면서 ‘이 팀은 내 팀이 아닌 대표의 팀이다. 오늘도 선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골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계속 믿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성용(뉴캐슬)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 지난 10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어온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반납한 가운데 주장 완장을 차고 매 경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이강인, 백승호, 이승우

(엘라스 베로나)와 같은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대표팀에 들어오고 있다.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이 알아서 잘해주고 있다. 챙길 부분은 특별히 없었다”면서 “나중에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 들어와서 대표팀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한다. 실력은 나중 문제”라고 조언했다. “어린 선수들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정말 잘할 선수들이다. 선수들이 알아서 대표팀 분위기에 적응하더라. 훈련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이강인과 백승호, 이승우는 뛰지 못했다. 이승우는 몸을 풀었지만 교체 투입이 불발됐고 이강인과 백승호는 아예 위밍업조차 하지 못했다. 다수의 축구팬들이 기대했던 모양새와는 다소 달랐다. 손흥민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린 선수들도 중요하나 나머지 선수들도 중요하다. 대표팀은 한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만 오는 곳”이라면서 “어린 선수들이 캠프에 와서 열혈 훈련하고 경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성장한다. 난 (그들의 성장이) 눈에 보였다”고 추어올랐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우리의 기다림도 많이 필요하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조급증을 경계했다. “물론 축구팬들 마음은 이해가 된다. 나도 그들을 경기장에서 보고 싶다”고 웃으면서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걸 즐기고 묵묵히 응원해주면 이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17회 고흥우주항공배 전남배드민턴 대회 성료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고흥군은 배드민턴동호회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17회 고흥우주항공배 전남배드민턴 대회가 최근 2일간 전라남도 배드민턴동호회 선수 가족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군에 따르면, 고흥군배드민턴연합회(회장 신철)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팔영체육관 등 군내 9개소에서 신인부, 혼합복식, 남자복식, 여자복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2일간의 열전을 펼친 결과 신인부에서는 고흥 이광을/강수호 혼합복식에선 고흥 신종호/정미연 남북 합평·강진 모재운/백두산, 여자복식 강진 김해리/김서연 선수 등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종목별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파크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는 가운데,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연중 온화한 기후와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신 활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전지훈련 팀 유치와 수많은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박항서 매직’ 현재진행형 베트남, AFC U-23 챔피언십 본선행

‘박항서 매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예선을 무사히 통과했다. 베트남은 28일 밤(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태국과의 대회 K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앞서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를 각각 6-0, 1-0으로 완파한 베트남은 3전 전승 조 1위로 본선행에 성공했다. 11골을 넣는 동안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이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자연의 길로 우리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